■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57. '바다의 성당' 산타 마리아 델 마르 (Santa Maria del Mar)

'산타 마리아 델 마르(바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은 1329년부터 1383년까지 55년에 걸쳐 건축되었다. 중세 시대 까딸루냐는 왕성한 해양 무역과 군사력에 의해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까딸루냐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리베라 지역에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 자신들을 지켜주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기로 했다. 산타 마리아 델 마르라고 명명된 이 성당이 당시 유럽의 다른 성당들과 달랐던 점은 귀족이나 사제 등 권력층 중심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평민과 하층 계급 노동자 등 까딸루냐의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땀과 노동력을 바쳐 지어 올린 성당이란 것이었다. 성당은 '까딸루냐 고딕' 건축 양식을 따라 순수하고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다. 7백여 년 동안 바르셀로나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산타 마리아 델 마르는 스페인 내전 때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아직도 중세 시대에 지어졌던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2006년 바르셀로나 변호사 일데폰소 팔코네스가 '바다의 성당' 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서 산타 마리아 델 마르의 건축에 얽힌 역사와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넷플릭스에서 그의 소설을 드라마화해서 나도 첫 3편 정도까지 보았다. 그냥 제목이 아름다워서 관심을 가졌던 소설과 드라마였는데 막상 보니 그 내용 중에서 성당을 짓기 위해 동원된 짐꾼들의 이야기와 모습에 더 마음이 끌렸다. 까딸루냐어로 '바스따이씨요' 라 부르는 짐꾼들은 성당을 짓기 위한 돌덩어리를 어깨에 지고 바닷가를 걸어 건축현장으로 날라 왔다고 하는데 그 돌덩어리 하나 하나가 산타 마리아 델 마르를 지어 올린 것이다.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그들의 땀방울이 서린 '바다의 성당' 을 꼭 보고 싶었다.

산타 마리아 델 마르는 엘 본 지구와 리베라 지구의 경계선에 있었다. 화려하고 번화한 엘 본 지구를 따라 걷다 보면 성당이 나타나는데 골목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광장에 있기 때문에 성당의 전경이 보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모습이 나타났다. 14세기에 건축되던 당시에는 성당 앞이 바닷가였다고 하니 그 주위를 도시가 점차 확대되어 가며 둘러싼 것 같았다. 저녁 무렵의 어스름한 빛 속에 서 있는 석조 성당은 고딕이라 기보다 참하고 소박한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같은 인상을 주었다. 멀리서 보아도 돌로 쌓아 올렸다는 것이 분명할 만큼 건물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한눈에 들어 왔다. 이 돌 한 덩어리마다 한 사람이 짊어지고 바닷가를 걸어 왔다는 말이지. 그 한 덩어리가 55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 성당이 되었단 말이지. 나는 성당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할 말을 잃었다.

R과 나는 타오르는 촛불로 밝혀진 성당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평소에는 입장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 기다란 직사각형 바실리카 형태로 지어진 성당 내부는 깜짝 놀랄 만큼 넓고 깊었다. 아, 정말 고딕 성당이구나. 나는 빛과 어둠이 경건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성당 내부를 보며 중얼거렸다. 육중한 기둥들이 33 미터 높이의 아치형 천정으로 치솟고 있었으며 초기 고딕 양식이어서 그런지 창은 벽 상단에 조금씩 나 있었다. '장미창' 이라고 불리는 채색창들을 통해 푸르스름한 저녁빛이 새어 들고 있었다. 성당 안은 어둠 속에 잠긴 깊은 바다 같았다.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당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올렸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그리고 절실한 감정들이 물밀 듯 밀려 왔다. 엄마,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 같아. R이 가만히 속삭였다. 그래, 그런 것 같아. 기도를 마치고 성당 안을 살펴 보다가 성당 입구의 돌벽 위에 걸린 조그만 금박 액자 두 개를 발견했다. 돌덩어리를 지고 가는 '바스따이씨요' 들을 묘사한 부조였다. 이 사람들이 이 '바다의 성당' 을 지어 올렸대. 이 조그맣고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왠지 목이 메어 말을 끝내지 못했다. 작은 액자 두 개로 남은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을 만나러 산타 마리아 델 마르에 왔던 것 같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또 잠시 기도를 올렸다.

Lic. #C-39 920169

지붕에 관한 모든 공사

주택/ 상가/ 아파트

• 지붕 수리 & 재시공
• 깨진 기와 & 싱글 부분 수리
• 새 지붕 & 비 새는 지붕 공사

무료 견적

쿨루프서비스 Roofing Contractor Since 2007

Cool Roof Service

(213) 820-3789 (714) 224-8394

www.coolroofservice.net

★ OC 전지역 전문 부동산에이전트
★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 상담환영
★ 리스팅, 바잉 & 1031 Exchage 전문
★ 주택매매, 렌트, 커머셜, 비즈니스 및 인컴유닛 전문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애니 윤
Annie K Yoon
C. 657.222.7331

뉴스타 탑건
중앙일보 & 조선일보 컬럼
F.I.T (n 뉴욕졸업) 부천여중/고졸
서울 서초구 상공회의소 3기이사 역임
전미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R)
가주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
DRE #: 02119369 Realtor®

annieyoon@newstarrealty.com

세금관리,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재테크 위에 稅(세금 세) 테크

26년간 LA Wilshire 한곳에서 OC Fullerton 으로 이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세금보고 및 회계업무
개인/ 주식회사/ 비영리 법인
각종 세금 관련 업무

▪ 회계 감사
IRS/ CDTFA/ EDD 세무감사 대행
주식회계/ 회계감사

▪ 투자 및 재정계획
뮤추얼펀드/ IRA/ 은퇴연금 상담
Personal Financial Planning

▪ 법인 설립 및 자문
주식회사 설립
한국 지상사 회계감사 및 자문

첫번째 사업체 상담 30분 무료

*오정훈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필요이상의 수임료 책정 등의 과잉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Tel: 714-770-0041 213-382-6062
Fax: 213-382-0323 Email: jaycpa@sbcglobal.net
251 E. Imperial Hwy., Suite 411, Fullerton, CA 92835

오정훈 공인회계사 Jung Hoon Oh, CPA
• California State Univ. Rohnert Park, CA BA, Accounting
• Arizona State Univ. Tempe, AZ MBA Business Admin. and Accounting